학교현장 '일제 잔재' 청산 아직도 멀었다

욱일문 '교표' 사용·친일 작곡 작사가 만든 교가도
도교육청 "학교 자체적으로 청산작업 하도록 할 것"

광복 이후 무려 7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주 학교 현장에는 일제 잔재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제주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연구' 중간보고서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도교육청이 지난해 7월 '제주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중간보고서를 살펴보면 제주에서 욱일문(旭日文)을 '교표'에 사용한 학교는 초등학교 4개교로 확인됐다.

욱일문은 일본 왕실의 국화 문장과 일장기가 결합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육군기, 해군기, 해군 군함기 등으로 사용됐다. 현재도 일본의 경찰 배지나 경찰공로장, 소방공로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주○초 교표는 욱일문과 나뭇잎 리본에 '○'이라는 글자를 결합해 만들어졌으며, ○○초는 무궁화 도안에 일장기가 연상되는 해가 사방으로 빛을 내는 문양과 그 밑에 바다와 월계수 문양이 결합됐다. ○○초는 욱일문, '○○' 글자, 무궁화 도안이 합쳐져 있었고, ○○초는 욱일문, 무궁화, 월계수에 '○○'이라는 글자가 혼합돼 있었다.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교직원으로 활동한 경우는 표선초 1대 교장 김면수(1855년~?), 제주고 2대 교장(사무촉탁) 이재신(1881년~?), 제주고 3대 교장 서병업(1874년~?) 등 3명이었다. 이들은 1910년 한일병합에 관계한 관리 등에게 수여되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는 등 친일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친일 작곡가나 작사가가 만든 노래를 교가로 사용하는 학교는 제주동초(김기진 작사), 의귀초(이원수 작사), 한림공고(이흥렬 작곡) 등 3개교였다. 또 친일잔재로 거론되는 나무인 가이즈까 향나무를 교목으로 지정한 학교는 35개교(초 18·중 11·고 6)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중간보고서에서는 반장이나 조회, 종례, 주번, 당번, 구령대, 수학여행 등의 용어도 일제잔재로 판단, 이를 대체할 용어를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달 마지막 현장조사를 끝으로 10월에는 공청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는 11월 이후에는 각 학교에 식민잔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자체적으로 청산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고영권 부지사 농지법 위반"
정의당 8일 검찰에 고발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8일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농지법과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기 직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부지사는 지난달 28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면서 "(이번 고발로) 농지가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의 필요와 이익을 위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농지법 위반은 경자유전이라는 헌법에 명시된 원칙을 훼손하는 큰 범죄"라며 "정무부지사를 부적절하게 임명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의당 제주도당은 "고 부지사는 부동산 실명제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면서 "(고 부지사 소유의) 구좌읍 동복리 농지는 6명의 공동명의로 돼 있는데 이 농지를 16억원에 거래하면서 고 부지사가 본인의 지분보다 많은 11억원을 대출 받고, 이자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비춰볼 때 해당 토지를 (공동명의가 아니라) 단독으로 실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오른쪽)이 8일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선거법 위반 의혹 오영훈 국회의원 무혐의
검찰, 위성곤·송재호 의원 관련사건은 조사 중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오 의원의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2건을 모두 불기소하기로 결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제주시 을선거구에서 오 의원과 경쟁했던 부상일 전 미래통합당 후보는 지난 4월 1일 방송토론회에서 오 의원이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검찰은 같은 당 소속인 위성곤(서귀포시)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건 중 1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나머지 1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의 선거법 위반 사건 3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이다.

총선 과정에서 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재직시절 발간한 의정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으며, 송 의원은 유세현장에서 '저를 위해 해줄 게 하나 있다. 4월 3일 제주에 와서 4·3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오 의원과 위 의원을 상대로 불기소 처분한 사건과 계속 조사를 이어가는 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도내 전공의들 휴진 중단… 업무 복귀
단체행동 가능성 남아있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전협 비대위)가 지난 7일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이어온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8일 오전 업무 복귀를 결정한 가운데, 제주지역 전공의들도 이날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따라 도내 대학병원 등에서 그간 취소 또는 연기됐던 수술 일정 등이 순차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7일 전체 전공의 대상의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8일 오전 7시부터 단체행동을 1단계로 낮추겠다는 것이 비대위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에 따르면 단체행동 1단계는 전공의 전원이 업무에 복귀하고 병원 별 비대위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제주지역 전공의들도 대전협 비대위의 지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업무 복귀를 시작했다.

제주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금일부터 단체활동을 유보하고 전원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대학교병원 등 도내 종합병원들은 전공의, 전임의 등이 업무에서 빠짐에 따라 수술 일정을 줄이고 응급실에선 경증환자를 돌려보내는 등 진료에 차질을 빚어 왔다. 의료진들이 수술은 물론 당직까지 도맡아 현장의 피로도도 상당한 상황이었다.

다만 전공의들이 다시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하다.

대전협 비대위는 의과대학생의 국가고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체행동 수위를 높이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날 업무에 복귀한 전공의 상당수도 의대생이 구제되지 않으면 다시 병원 밖으로 나오겠다는 입장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SFTS 감염 환자 연이어 발생… 올들어 11명

야생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10·11번째 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A(53·여)씨와 B(48)씨가 지난 2일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8월 26일부터 발열, 구토 등의 증세를 보여 한라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보건당국은 A씨가 자신의 과수원에서 작업을 하다 야생진드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는 지난 8월 29일부터 고열, 오한, 근육통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별한 야외 활동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에서는 올해 11명이 SFTS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야외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긴옷을 착용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뿌려야 한다"며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38~40℃의 고열, 구토, 설사 등 소화기증상과 전신근육통 등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곧바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택배노조 대책 마련하라"

제주에서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과 추석 전 분류작업 인력 투입을 촉구하는 택배차량 추모행진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 사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는 8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죽음의 분류작업을 거부하고, 살기 위한 배송을 추진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추석 연휴로 쏟아지는 물량 앞에서 택배노동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며 배달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체국 택배부터 분류작업 인력을 시급히 투입하고, 민간택배사에 분류작업 인력 투입을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지금 분류작업 인력투입을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다혜기자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다)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타 만감류에 비해 소득이 월등합니다. 잘나가는 레드향과 비교해도 최소 2~3배의 소득이 가능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단가가 높습니다.(레드향은 해거리가 심함) 주요 만감류는 거의 포화상태인데,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입니다.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어짐.
·카라향 1, 4년생 / ·궁천변이 1, 2년생
·유라실생 2,3,4년생 /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 ·하귤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례조생, 궁천, 궁천변이지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3년생
감평 1,3,4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유라실생 3,4년생
탱자묘 1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